

교정상담이 수형자의 적응과 수용생활에 미치는 영향

김 석 현 배 준 성 장 훈 허 태 균[†]

법무부 원주교도소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교정상담이 교정시설 수형자의 수용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형자들에게 인성상담, 종교상담, 개인상담을 진행하고 그들의 행동변화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상담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상담 프로그램 실시 직전, 그리고 상담 직후와 2개월 후의 수형자의 범죄적 경향성, 수용생활 행형점수 및 징벌횟수를 측정하여, 그 변화값으로 상담 종류 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성상담 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다른 상담집단에 비해 인성상담 집단이 아무런 상담을 받지 않은 집단과 대비할 때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교정상담의 효과가 2개월 후까지 지속된 것이 발견되었다. 상담의 진행 시기가 집단들 간에 차이가 있는 점, 특정 종교를 가진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해 완전무선할당이 불가능했다는 점 등의 한계점과 함께 교정상담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교정상담, 수형자, 인성상담, 종교상담, 개인상담, 교정효과, 적응

[†] 교신저자 :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Tel : 02-3290-2862, Email : tkhur@korea.ac.kr

범죄의 발생은 다수 혹은 사회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신을 낳는다(김범준, 2007). 2007년 총범죄 발생건수는 1,836,496건으로, 2006년의 1,719,075건에 비해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범죄의 51.6%는 재범자에 의한 것이었고,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도 18.7%로 나타났다(경찰백서, 2008). 50%가 넘는 높은 재범률은 현재의 교정정책과 교정인들의 노력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다.

수형자(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형이 확정되어 형을 집행중인 자)들의 격리와 교정을 담당하는 교도소에서 교정 업무는 수형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현실은 수형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보다 사회침해에 대한 방어기능으로써, 범죄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및 구금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화수, 1997). 수형자들의 교정을 위해서는 그들이 교정시설과 그 환경 내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형자들의 부적응으로 인해 교도소의 단순 격리 및 구금 업무조차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교정시설에서 5,961건의 교정사고가 일어났는데 그중에서 수형자간 폭행상해가 3,766건(63.2%), 직원폭행이 705건(11.8%)에 이르며 병사, 소란난동, 자살 등의 순으로 부적응 행동들이 많이 나타났다(법무부, 2008).

수형자들이 보이는 교정시설 내에서 부적응 행동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수형자 요인에 의한 것과 교정환경 요인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수형자 요인은 수형자의 교도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들과 관련된다. 수형자는 교정시설에 입소하여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환경에 스스로 적응해 나가는 데 수형자의 교정시설 내 적응은 수형자의 행동특성(Irwin & Cressey 1962), 구금기간(Cohen & Taylor, 1972; Garabedian, 1963; Mackenzie & Goodstein 1985; Peterson & Seligman, 1984; Schill & Marcus, 1998; Zamble 1992), 구금기간 외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수형자들 간의 유대감 혹은 교도소화(prisonization)에 따라 달라지며(김자경, 2000; Clemmer, 1958; Sykes & Shelden, 1960; Tauss, 1988), 행동특성, 구금기간, 교정시설 내 하위문화 같은 변인을 통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Zingraff, 1975). 둘째, 교정환경 요인은 수형자가 처하게 되는 물리적 환경은 물론, 효과적인 재사회를 위한 각종 훈련 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심리적 환경 모두와 관계된다. 수형자는 자유가 제한된 상태로 3.5평의 공간에서 13~14명과 함께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며 이로 인해 혼잡함을 느끼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수형자가 이러한 교도소의 환경 조건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자기 통제감을 상실하는 경우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수형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보고,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지 않게 된다(홍성열, 2007). 교정환경 내에서 의미 있는 교정/적응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하면 수형자들이 교육과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낮아지며, 출소 후의 생활에 대한 소망을 적게 가지게 된다(Kupers, 1996).

그 원인이 무엇이든 교정시설 내 부적응적 행동 양상은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출소 후 재범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공정식, 1996; 심영희, 윤성은, 임희철, 김치곤, 1992). 교정시설 내 부적응 행동양식중 하나인 교도소화가

강한 출소자들은 교도소화가 약한 출소자들에 비해 재범률이 더 높다는 연구들도 있다 (Goodstein, Mackenzie, & Shotland, 1984; Porporino, 1991). 따라서 수형자들이 재사회화 훈련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교정시설 확대를 통한 범죄예방보다 2배 이상 비용면에서 효과적이며,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 요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할 수 있다(오원선, 2004).

수형자의 개인 요인과 교정환경 요인 모두를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교도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교정의 의미는 ‘사회규율을 위반한 범죄인들을 사회와 격리시키고 구금하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교육과 치료를 통하여 교정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준비시키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송태호, 1995; 정갑섭, 1993; 허주욱, 2003), 교정의 부분 중 교육과 치료의 영역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상담인데, 이를 교정상담이라 한다. 교정상담은 수형자의 인지체계를 물론 생활양식까지 바람직하게 바꿀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교정환경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유문상, 1998).

교정상담

교정상담은 교정 작용의 일환으로, 교정환경에서 수용생활중의 문제에 대해 상담가적 지식과 기술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 잘못된 인지체계, 인생관, 생활양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상담하는 수형자에 대한 직접적 교정처우이다 (유문상, 1998). 또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들의

범죄성을 감소시켜 사회 복귀 후 사회적응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공정식, 1998). 실제로 수형자들은 자신의 생활과 고충에 대해 상담을 하고 싶어도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교정직원이나 교정위원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한다. 미국의 경우 교정시설에 전임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상담인원이 830여명에 이르고, 이들은 심리평가, 심리치료, 행정업무, 위기개입, 직원훈련, 자문 등을 하고 있다 (Boothby & Clements, 2000). 그러나 우리나라 교정시설에는 전문적인 상담 및 임상적 조치는 거의 없고, 자원봉사 상담자들에 의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수준이라 그 실효성이 제한적이다(문화관광부, 2005). 이러한 비전문적인 교정참여 인사들이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수형자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의지는 사라지게 된다. 또한 수형자의 입장에서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비전문적인 교정인사들에 의해 상담을 받는 경우 교정치료라기 보다는 대체 형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박광배, 지형기, 2004 재인용). 반면에, 수형자와 효과적인 상담을 한다면 수형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아가 능력을 발휘하고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법무부, 2002).

이는 치료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 이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 법과 제도의 반교정적인 결과 초래의 대안으로 대두되는 치료사법 이념은 수형자의 교정을 위해 현행법과 제도뿐 아니라 법에 심리학, 정신의학, 행동과학, 사회학 등의 연구를 접목시켜 치료자로서의 법을 모색하여 개인의 교정의

효과를 증진시키려고 하는데 주목적을 둔 범철학 이념이다(Slobogin & Kalmuss, 1998). 미래의 교정은 행동제약과 같은 수동적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정상담과 같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법의 책무라는 점을 담고 있다(박광배, 지형기, 2004). 치료사법 이념에서 보면 교정시설 내에서의 상담은 수형자들이 원만하게 사회생활로 복귀하게 하는 교화의 시발점으로써, 또한 수용생활중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형자 관리의 중요한 방법으로써, 수형자들의 전 인간적 회복을 위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왜곡된 인간관과 사회관, 그리고 심성을 치료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조광석, 2000).

이러한 교정상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정상담은 교정시설의 보안수준에 따른 상담자의 역할제한, 교정시설 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된 상담 비밀유지, 호출상담과 같은 비자발적 상담 등 교정상담 고유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뢰로운 상담 관계인 협동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오충광, 정남운, 2007)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상담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필요성에 비해 실효성이 낮은 이유 때문에 교정상담은 일반인 상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상담 전문가가 아닌 교정직원의 몫으로 치부되어 왔다. 하지만 치료사법 이념의 실천, 혹은 현실적 요구인 사회적 재범률 감소를 위해서 교정 상담은 꼭 필요하며, 교도소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범죄자의 교정에

있으며, 오늘날의 강력범죄와 높은 재범률은 어느 때보다 효과적인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형자의 교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로 인해, 현재 교정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교정상담 프로그램이 과연 실제로 수형자의 교정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교정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개입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그러므로 교정상담은 각각의 프로그램이 가지는 효과성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며, 이는 상담을 받는 대상과 상담 프로그램이 가지는 특성과의 관계를 주의 깊게 연구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정상담은 견고한 이론적 바탕을 두고 개발된 치료기법이 효과적이고 그 중에서 인지적 행동이론 또는 사회학습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이명숙, 2001) 이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교정상담을 통해 수형자들이 적응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감소시키고, 심리 사회적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한 강선경과 박인숙(2005)의 연구는 상담프로그램 효과성을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증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교도소 내의 생활과 사회생활과의 가치관 혼란과 현실감의 괴리현상과 불안감으로 인한 공격성이 표출되는 등의 적응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의 해소를 위한 불안과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 서혜석(2008)의 연구는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 효과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에서는 동일한 교정시설내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해보려는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정 시설 내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교정상담 프로그램들이 수형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차후 출소 후에 있을 사회 복귀 시 올바른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정시설 내 적응양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성상담, 개인상담, 종교상담이 수형자의 행형 점수와 규칙 위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행형 점수, 규칙 위반 행동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 행동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데 이러한 구체적인 지표의 변화를 통해 각 상담이 수형자의 교도소 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상담을 받은 수형자는 교정상담을 받지 않은 수형자에 비해서 보다 높은 행형 점수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교정상담을 받은 수형자는 교정상담을 받지 않은 수형자에 비해 보다 규칙 위반 행동을 적게 할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정시설인 W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남자 수형자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성상담 집단 40명, 종교상담 집단 40명, 개인상담 집단 40명, 아무런 상담에도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40명이었다. 종교상담은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둔 상담방법으로 진행된 관계로 수형자 중에서 기독교신자인 사람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상담에 응한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그 외의 집단에는 종교에 관계없이 상담에 자

발적인 참여자들이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¹⁾

연구시기 및 절차

본 연구는 2007년 9월 17일 ~ 9월 21일 동안 교도소 내 상담 프로그램에 대하여 W교도소에 수용중인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한 후,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각 집단별로 무선 배정하였다. 2007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실험집단별로 각 90분씩 10회기씩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통제집단은 아무런 상담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상담 프로그램 시작 전에 참여 대상자들에게 대해 교정심리검사를 실시하였고, 1개월간의 행형점수와 3개월간의 수용생활 중 준수하여야 할 규율에 대한 위반행위의 빈도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완료된 당월과 2개월 후 각각의 행형점수와 3개월 동안의 규율위반 사항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반복측정은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여 주고, 상담결과의 지속성을 검증해 줄 것이다.

교정상담 실시 프로그램 내용

인성상담 프로그램

강원대학교 상담센터 연구팀이 외국의 교정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1) 교정상담의 특성상 상담 참여여부와 내용을 강제로 부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특히 종교상담은 참여자의 종교에 제한을 받는 관계로 완전한 무선할당을 실현할 수 없었다. 실험방법적인 한계는 있지만, 실제 교정상황에는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외적타당도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표 1. 인성상담 프로그램 구성

회차	내용	도구, 준비물, 방법
1회차	프로그램 소개와 분노에 관한 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적 분노관리 집단 참가 계약서 양식 2. 생산적 분노관리 집단 참가 계약서 양식을 읽고 작성할 프로그램참가 동의서 3. 사전-사후 검사용 설문지 4. 무엇이 분노인가 유인물 5. 과제물로 부여할 프로그램 목표 설정과 생산적 분노 기록지
2회차	분노 관련 내용 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뇌 도형(화이트보드/보드마커 혹은 파워포인트 자료나 OHP 필름과 유인물) 2. 공격성의 신경심리학적 원인에 관한 유인물 3. 지능과 정서지능에 관한 유인물 4. 분노조절의 ABC에 관한 유인물 5. 화가 났을 때의 행동에 책임감 갖기 6. 분노의 통념 유인물 7. 분노에 관해 알아야 할 12가지(유인물) 8. 3회기에 작성해올 과제물: 무엇이 자신을 화나게 하는가?(유인물)
3, 4회차	분노 관련 내용 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노 관리 기술 순서도 2. 분노 상황 예문 3. 분노관리 기술 안내서 4. 분노 관리 전략 목록 5. 새로운 행동 시도 과제물
5회차	사회적 기술 향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청하기 2. 말로 표현하기 3. “나” 메시지 연습 예문
6회차	주장 행동 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장행동에 관한 설명서 2. 주장행동과 비주장행동의 예 3. 주장행동이 어려웠던 장면 기입지
7회차	Social Skills Training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제-해결 단계 유인물 2. 나의 갈등 상황 다루기
8회차	비평 주고받기 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평 주고받기 유인물 2. 상황극(출소 후 만나게 될 가족과의 상황, 취업 면접 상황)을 통한 사회기술 향상
9회차	도덕적 사고 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덕적 사고의 단계에 관한 유인물 2. 하인즈의 딜레마
10회차	프로그램 종료	

표 2. 종교상담 프로그램 구성

회차	내용	도구, 준비물, 방법
1회차	마음 문 열기	찬 양
	서로의 마음/별칭 짓기 우리의 다짐	마음의 변화를 통한 변화와 혁신 학습참여 동기유발
2회차	마음 문 열기	찬 양
	영성회복 나는 누구인가	새로운 자아발견 자신의 참모습발견
3회차	마음 문 열기	찬 양
	하나님 자녀의 축복 내가 겪은 인생	공감대 형성 자아발견 타인이해
4회차	마음 문 열기	찬 양
	구원의 목적 인생계획	현재부터 인생계획 세우기 체계적인 생활자세 확립
5회차	마음 문 열기	찬 양
	구원의 확신 자연과의 대화	인간사랑 자연사랑 극한 상황 대처
6회차	마음 문 열기	찬 양
	주님 영접 위기관리 능력	위기에 처한 현실 속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진정한 삶의 의미 인식
7회차	마음 문 열기	찬 양
	죄인의식 탈피 진정한 삶의 의미	죄의식 내려놓기 삶의 의미 되찾기
8회차	마음 문 열기	찬 양
	자기 비움 이미지 향상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자신의 이미지 점검
9회차	마음 문 열기	찬 양
	주님의 택하신 백성 나는 누구인가	프로그램 마치며 실천다짐
10회차	마음 문 열기	찬 양
	결단의 시간 프로그램 종료	앞으로의 삶 결단

재구성한 ‘수형자의 생산적 분노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전문적인 진행을 위해 강원대학교 상담센터의 상담심리사 4명(여성)이 2명씩 A, B조로 나누어 진행 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은 표 1과 같다.

종교상담 프로그램

종교상담 프로그램은 영성훈련 전문가가 개

발한 ‘영성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서 15년 이상 교정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기독교 목사가 수백 회 이상 같은 상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하였다. 개발자인 목사와 보조 진행자 5명이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3. 개인상담 프로그램 구성

회차	내용	도구, 준비물, 방법
1회차	적극적경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형자의 욕구 파악하기 2. 수형자의 입장에 서서 듣기 3. 수형자의 입장의 마음가짐 알기 4. 듣는 것 외에 수형자의 의도 확인하기 5. 신체언어 듣기(안면표정, 손발의 동작, 자세, 목소리 억양 등)
2, 3회차	공 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형자의 감정어귀들을 반복하여 따라하는 것 2. 주요감정을 읽어 부연해 주는 공감 3. 수형자의 억눌린 감정을 마음껏 발산하게 하는 공감 4. 수형자의 말속에서 인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다루는 공감 5. 공감의 방법: 수형자의 배경과 감정표현을 동시에 해주기
4, 5회차	수용적 존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인간관계의 철학에서 출발 2. 수형자에게 수용적 존중의 태도 견지
6, 7회차	핵심문제 찾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형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2. 상담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3. 그래서 수형자가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것인가? 4. 어떤 일이 있었나?
8, 9회차	행동 바로잡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표설정 2. 목표합의 3. 구체화 시키기 4. 대안찾기 5. 지도력 발휘로 행동바로잡기
10회차	프로그램 종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감 확인 2. 요약 정리 3. 긍정적 피드백

개인상담 프로그램

개인상담은 교정직원 중 대학원 등에서 상담훈련을 받은 범죄심리사 및 상담심리사 총 10명이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교정상담 전문가 4명의 추가지원이 있었다. 진행단계는 적극적 경청, 공감, 수용적 존중, 핵심 문제 찾기, 행동 바로잡기, 끝내기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구성은 표 3과 같다.

평가 도구

교정심리검사

법무부(2002)의 교정심리검사(CST) “객관적 위험성 평가 도구”로 수형자들에게 내재된 범죄적 경향성을 측정하였다. 검사 실시 시점은 교정상담을 실시하기 전에 진행되었다. 이 검사는 허위성척도 1개, 위험성 척도 6개 등 7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척도의 구성내용은 1) 비행습관 27문항, 2) 공격성향 27문항, 3) 범죄적사고 28문항, 4) 자포자기 24문항, 5) 자살소망 23문항, 6) 망상경향 22문항, 7) 허위성향 24문항이며, 총 175문항으로 된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Spearman 상관지수에 의한 신뢰도는 비행성향 .65, 공격성향 .62, 범죄성향 .59, 포기성향 .80, 자살성향 .77, 망상성향 .68이다. 이수정과 이인희(2007)는 교정심리검사의 7개 하위 척도 가운데 허위성향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하위 척도가 수형자의 규율 위반을 유의하게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행형 점수

교도관이 참가관찰법으로 부여한 행형점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수형자 분류 처우 규칙(법무부령 제541호)’에 의거하여 소행점수(품행과 책임감, 협동심의 수용생활에 대한 정도에

따라 최고 6점까지 부여), 작업점수(근면성, 작업에 대한 노력 등의 작업성적의 정도에 따라 최고 6점까지 부여), 그리고 상훈점수(교정사고 예방자에 대한 점수로 3점까지 부여)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소행 및 작업점수는 수·우·미·양·가로 구별하여 채점하며, 채점방식은 각 수형자 담당교도관이 수형자의 평소의 소행과 작업 성적을 면밀하게 관찰한 후 우수한 수형자에게 매월 높은 점수를, 불성실한 수형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매월 작업담당, 보안담당, 분류심사담당, 누진처우담당, 관구책임자 등 15명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점수를 확정하였다. 관찰자 편향(observer bias)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에 참여하는 수형자의 담당교도관에게 연구의 진행을 알리지 않았으며 상담실시 전월 점수, 상담이 완료된 당월 점수, 상담완료 2개월 후의 점수를 사용하였다.

징벌 횟수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555호)’에 규정되어 있는 수용생활 중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벌칙) 횟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안전과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 폭력, 도주, 수용생활 방해, 시설훼손,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성적인 음란행위 등 21가지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이다. 상담 전 3개월과 상담 후 3개월 동안 위반한 경우를 수집하였다.

결 과

상담 전 집단 간 차이검증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 재범 횟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전체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7.34세($SD = 8.24$)였으며, 전과는 평균 2.69범($SD = 1.66$)이었다.

집단 간 연령과 재범 횟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과 재범 횟수에 있어서는 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3, 156) = .59, ns$; $F(3, 156) = 1.19, ns$).

표 4. 연령, 재범 횟수, 형량에 대한 기술통계

	인성상담	개인상담	종교상담	통제집단
연령	37.88 (9.70)	38.35 (7.86)	37.10 (7.87)	36.05 (7.47)
재범 횟수	2.65 (1.63)	3.03 (1.78)	2.35 (1.53)	2.73 (1.69)

주. ()안은 표준편차 또는 %.

각 집단에 속한 수형자의 교정심리검사 점수 비교

각 집단에 속한 수형자의 교정심리검사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정심리검사 T 점수를 살펴보았으며, 하위척도에 따른 집단 간 점수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각 집단에 속한 수형자의 교정심리검사 점수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척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정심리검사의 하위 척도인 허위성향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으나($F(3, 156) = 2.795, p < .05$), 나머지 하위 척도인 비행성향($F(3, 156) = .54, ns$), 공격성향($F(3, 156) = .22, ns$), 범죄성향($F(3, 156) = .65, ns$), 포기성향

($F(3, 156) = 1.17, ns$), 자살성향($F(3, 156) = .27, ns$), 망상성향($F(3, 156) = .34, ns$)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에 참여한 집단의 구성이 수형자의 수형 생활 및 규칙 위반 행동에 미치는 변인들에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통제집단과 종교상담 집단에서 허위성향 점수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p < .05$), 나머지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허위성향은 거짓으로 응답을 하거나 자신을 보기 좋게 표현하려는 반응의 왜곡가능성을 측정하는 타당도 척도이므로, 본 연구에서 주관심사인 범죄적 경향성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높은 점수를 보인 통제집단의 교정심리검사 결과의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

각 집단에 속한 수형자의 행형 점수와 징벌 횟수 비교

네 집단의 사전 행형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3, 159) = 3.77, p < .05$) 징벌 횟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3, 159) = 1.02, ns$). 행형 점수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인성상담 집단과 통제집단, 그리고 종교상담 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5$), 나머지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교정상담 실시

2) 허위성향은 거짓된 반응으로 검사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려는 피험자를 가려내기 위해 존재한다. 본 연구의 통제집단은 ‘나는 지금껏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법을 지킨다’와 같은 문항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비추어 응답하였으며, 이는 그들에게 내재된 범죄경향성을 감추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교정심리검사 하위 척도에 대한 기술통계

	인성상담	개인상담	종교상담	통제집단
허위성향	49.90 (13.92)	49.25 (12.82)	48.13 (11.39)	55.55 (11.83)
비행성향	51.20 (6.76)	49.88 (6.60)	49.60 (6.61)	50.98 (7.21)
공격성향	47.73 (7.80)	47.20 (6.00)	46.50 (8.10)	47.63 (7.70)
범죄성향	54.00 (8.33)	53.68 (7.94)	52.33 (9.30)	55.13 (10.53)
포기성향	52.08 (10.80)	49.70 (8.66)	50.50 (11.11)	53.78 (11.33)
자살성향	48.90 (8.92)	47.78 (7.73)	48.15 (8.28)	49.28 (8.24)
망상성향	48.48 (9.10)	47.25 (7.37)	46.93 (10.59)	48.70 (11.00)

주. ()안은 표준편차 또는 %.

표 6. 집단에 따른 행형 점수와 징벌 횟수 기술통계

	행형 점수	징벌 횟수
인성상담	7.23 (1.29)	.50 (.85)
개인상담	6.90 (1.63)	.45 (.68)
종교상담	7.25 (2.10)	.30 (.82)
통제집단	5.96 (2.65)	.60 (.78)

주. ()안은 표준편차.

전에 측정된 결과이므로 행형 점수가 낮은 재소자들이 교도소 내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일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

를 고려하여 차후의 분석은 상담을 통한 변화량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의 전과 후를 비교하는 형태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순수한 교정상담의 효과를 검증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상담 진행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

교도소 내 여러 상담 프로그램이 수형자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성상담 집단, 개인상담 집단, 종교상담 집단, 그리고 통제집단에서 상담 프로그램 진행 이전과 이후,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 2개월 뒤에 나타나는 행형 점수와 징벌 횟수의 변화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각 집단의 행형 점수와 징벌 횟수의 변화값

표 7. 집단과 측정시기에 따른 행형 점수와 징벌 횟수 변화값(차이값)³⁾

	행형 점수 변화값			징벌 횟수 변화값
	사후-사전	추수-사후	추수-사전	사전-사후
인성상담	1.80 (1.11)	.20 (.88)	2.00 (1.50)	.35 (.58)
개인상담	1.18 (1.52)	.53 (.78)	1.70 (1.68)	.28 (.60)
종교상담	1.63 (1.81)	.23 (.89)	1.85 (1.75)	.28 (.85)
통제집단	.85 (1.10)	.10 (.38)	.95 (1.20)	.15 (.62)

주. ()안은 표준편차.

(측정 회기별 차이값)이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 시기에 따른 행형 점수 변화값(사후-사전, 추수-사후, 추수-사전)과 징벌 횟수 변화값(사전-사후)을 가지고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형 점수 변화값에서 사후-사전의 변화값($F(3, 159) = 3.71, p < .05$)과 추수-사전의 변화값($F(3, 159) = 3.64, p <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둘 다 인성상담 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p < .05$)가 있었다. 징벌 횟수의 변화값에선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⁴⁾ 교정상담 실시

- 3)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행형 점수는 후순위 측정시기에서 선순위 측정시기 점수를 뺀 값을 사용하였고(행형 점수 상승이 수행자의 긍정적 태도 변화를 의미), 징벌 횟수는 선순위에서 후순위 측정치를 뺀 값을 사용하였다(징벌 횟수 감소가 수행자의 긍정적 태도 변화를 의미).
- 4) 본 연구는 상담을 통한 변화량에 주목한 관계로 징벌횟수 변화값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의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징벌 횟수에 대한 혼합변량분석 결과, 피험자 내 변인인 측정시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F(1, 46) = 111.62, p <$

2개월 후의 행형점수가 상담 이전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상담직후에 행형점수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교정상담의 효과가 2개월 후에도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성인 남자 수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정상담 프로그램이 수행자들의 교도소

.001). 이는 집단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징벌 횟수가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 시점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정시설 내의 구금기간 자체가 수행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Mackenzie & Goodstein 1985). 더 나아가 집단*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F(3, 46) = 7.45, p < .001$). 이는 측정시기에 따른 징벌 횟수 변화가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처럼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은 사전, 사후 측정시기에서 나타난 징벌 횟수의 감소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우연한 것이 아님을 지지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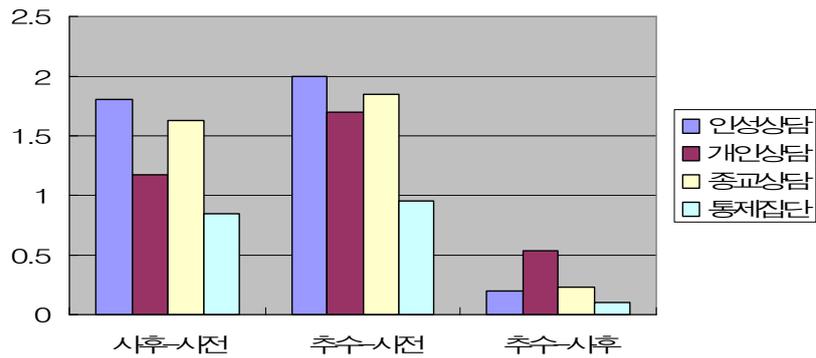


그림 1. 측정시기에 따른 집단 간 행형 점수(차이값)의 변화

내 생활과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험집단 간 연령과 재범 횟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네 집단이 상담 프로그램 진행 전에 집단 간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각 집단 간 교정심리검사에서는 허위성향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으나, 나머지 하위척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각각의 상담을 진행한 후 수형자의 교도소 내 생활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하기 위해 수형자 담당교도관의 관찰보고서에 기록된 행형점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성상담을 받은 집단이 아무런 상담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정상담이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었으며, 개인상담과 종교상담도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행동 변화의 방향성을 보였다. 본 연구가 단지 각 조건에 40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을 고려하고 실제 교정상담이 수만 명을 대상으로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 효과는 실제 교정현장에서는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한 인성상담은 여러 종류의 인성상담 중에서 수형자의 생산적 분노관리 프로그램 한 가지였는데, 이와 같은 분노조절훈련 프로그램이 폭력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인성상담에 참여하는 수형자들을 폭력범죄자에 한정하지 않았기에 향후 상담을 진행할 때는 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욱 상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의 의미는 이러한 교정상담의 효과가 상담 종료 2개월 후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교정상담을 단순히 일시적인 교정시설 내의 적응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출소 후에 사회적응과 재범률에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려면 상담이 종료된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기대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교정상담이 현재 교정과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임을 제안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수용생활 중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 횟수는 집단 간 징벌 횟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측정시기에 따른 징벌 횟수의 변화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규율 위반 행위는 법체계에 대한 저항과 수형생활에 대한 부적응의 결과인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징벌횟수 자체가 너무 낮아서 충분히 통계적인 (특히 각 집단에 40명의 실험집단으로는)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과반 수 이상의 실험참가 수형자들이 징벌을 받지 않은 결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상담이전과 이후의 징벌횟수의 절대적인 수치는 감소하는 방향성을 보였다. 이는 행형점수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형자의 수가 적어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며, 전체 수 만 명의 수형자 집단을 생각할 때 그 의미를 새로 해석하는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교정상담 프로그램이 동일한 시점에 진행되지 못하였다. 교정시설의 한정된 공간에서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 관계로 집단 간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었다. 인력과 수형시설 내외부의 지원을 추가하여 동일시점에 유사한 환경에서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정상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동기가 부족하였다. 수형자들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형자들의 소극적인 상담 참여 태도 등 교정상담의 한계점 때문에 각 집단의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상담을 통해 수형자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

이 가능함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교정상담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계기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풍부한 경험을 지닌 교정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수형자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내실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수형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처우에도 반영하는 등 교정상담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상담 받기를 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상담에 참여하기 원치 않는 사람도 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였을 때 효과가 나타나야 치료사법 이념에 따른 교정상담의 진정한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규정상 상담을 원치 않는 수형자들에게 상담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부분은 향후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W교도소의 남자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수형자들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수용생활과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각 교정시설의 수용환경, 수형기간, 죄명별, 범수 등을 고려하여 교정상담을 실시하면 다른 의미 있는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정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평가 방법에 있어서 주관적인 관찰법에 의존한 한계가 있다. 향후 교정상담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객관적인 통계기법을 기초로 우리나라 교정현실에 적합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교정

효과를 재범 유무로 측정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교정상담을 공식적인 수형기록으로 남기도 록 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재범추정, 그리고 그로 인한 교정상담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 분석 또한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교정상담 연구의 효율성에 더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피상담자의 성향을 크게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상담에서 피상담자의 성향과 그에 따른 상담자의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바, 향후 교정시설내의 피상담자의 성향에 대한 논의와 그에 맞는 교정 상담 프로그램의 대응에 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겠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교정 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정상담 프로그램이 교도소 내에서의 적응과 수용생활에 있어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정상담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를 통해 교정상담에 참여할 의지가 전혀 없는 본 연구의 통제집단과 같은 대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유인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교정상담을 통해 교화시키려는 대상은 상담을 받으려는 수형자뿐만 아니라 수감시설 내에 있는 수형자 전원이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상담을 원치 않는 수형자들에게 강제로 상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없다는 현재 규정상의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교정상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 보다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려는 노력,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 인력과의 네트워크 구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선경, 박인숙 (2005). 공격성 감소와 사회재 적응 향상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교정연구*, 27, 57-78.
- 경찰청 (2008). *경찰백서*.
- 공정식 (1996). 범죄인의 법률관, 범죄관 및 수형 환경이 시설적응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정식 (1998). 21세기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 연구원.
- 김범준 (2007). 범죄발생이 사회불안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3), 127-153.
- 김자경 (2000). 교정시설내에서의 수형자의 행동, 의식 및 적응유형과 자아방어기제간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화수 (1997)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도소의 역할. *교정연구*, 7, 397-426.
- 문화관광부 (2005). 교정시설 수용자를 위한 문화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연구소*.
- 박광배, 지형기 (2004). 가정폭력에 대한 법제 도적 대안: 치료적 사법이념의 관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69-86.
- 법무부 (2002). *교정상담. 교정국*.
- 법무부 (2008). *교정사고 통계분석. 교정본부*.
- 서혜석 (2008). 교도소 재소자의 특성불안 및 공격성 감소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교정연구*, 38, 83-106.
- 송태호 (1995). *교정교육학*. 서울: 미리내.
- 심영희, 윤성은, 임희철, 김치곤(1992). 재소자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원선 (2004) 한미 수형자 직업훈련에 관한 비교연구. *교정연구*, 25, 109-131.
- 오충광, 정남운 (2007). 정서표현갈등과 상담자 지각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1), 115-136.
- 유문상 (1998). 교정상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숙 (2001).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관한 고찰. *교정연구*, 13, 331-362.
- 이수정, 이인희 (2007). 수용자의 교정심리검사와 교정상담평가의 예측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1-15.
- 정갑섭 (1993). 교정학원론. 경기도서.
- 조광석 (2000). 한국교정시설내 상담실운영 실태 분석에 따른 수용자 교화의 목회 상담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주욱 (2003). 교정학. 서울: 법문사.
- 홍성열 (2007). 수형자의 교도소 생활에 대한 적응. *교정연구*, 35, 99-115.
- Boothby, J. L. & Clements, C. B. (2000). A national survey of correctional psychologist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7, 716-732.
- Clemmer, D. (1958). *The Prison Community*. Boston: Christopher.
- Cohen, S. & L. Taylor. (1972). *Psychological Survival*. New York: Random House.
- Garabedian, G (1963). Social Roles and Processes of Socialization in the Prison Community. *Social Problems*, 11, 193-152.
- Goodstein, L., Mackenzie, D. L., & Shotland, R. L. (1984). Personal Control and Inmate Adjustment to Prison. *Criminology* 22(3), 343-369.
- Irwin & Cressey, D. R. (1962). Thieves, Convicts and the Inmate Culture: *Social Problems* 10, 142-155.
- Kupers, T. A. (1996). Trauma And Its Sequelae In Male Prisoners: Effects of Confinement, Overcrowding, and Diminished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6(2), 189-196.
- Mackenzie, D. L. & L. Goodstein. (1985). Long-term Incarceration Impacts and Characteristics of Long-term Offenders: An Empirical Analysis. *Criminal Justice Behavior* 12(4), 395-414.
- Peterson, C. & Seligman, M. E. P. (1984). Causal Explanation as a Risk Factor for Depression: Theory and Evidence. *Psychological Review* 9, 347-374.
- Porporino, F. J. (1991). Differences in Response to Long-term Imprisonment: Implication for the Management of Long-term Offenders. Report No. R-10.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 Schill, R. A. & Marcus, K. M. (1998). Incarceration and Learned Helpless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2(3), 224-232.
- Slobogin, J. A. & Kalmuss, D. (1998). Socialization and stress explanations for spouse abuse. *Social Forces*, 67, 2, 473-491.
- Sykes, G. & Sheldon, M. (1960). The Inmates Social System. in Ricard A. Cloward et.(eds). *Theoretical Studies in Social Organization of the Prison*. New York: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5-19.
- Tauss, R. (1988). Subcultural Intergration and Prisonization: Stability of Prisonization

- Determinants in Regard to Inmate of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ies; in Gunther Kasier and Isole Geissler(eds.) *Crime and Criminal Justice: Criminological Research in the 2nd Decade at the Max Planck Institute in Freiburg, Freiburg*: Max Planck Institute, 251-272.
- Zamble, E. (1992). *Behavior and Adaptation in Long-term Prison Inmates*. New York: Spring-Verlag.
- Zingraff, M. T. (1975). Prisonization as an Inhibitor of Effective Re-Socialization. *Criminology*. 13, 336-381.
- 논문투고일 : 2009. 01. 08
1차 심사일 : 2009. 01. 15
2차 심사일 : 2009. 02. 19
게재확정일 : 2009. 05. 01

Effects of counselling on the adaptation and behaviors of inmates

Suckhyun Kim

Department of Justice
Wonju Prison

Joonsung Bae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Hoon Jang

Taekyun Hur

The present research examine the impacts of correctional counselling for prisoners on their adaptation and behavior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Three kinds of counselling - characteristic, religious, and individual - were given to prisoners and the prisoner's behavioral changes were measured. Specifically, the participating prisoners' behavioral evaluations and punishment records were assessed before, right after, and two months after the counseling sessions. In addition, a control group in which the prisoner were not given any session of counselling was included for comparison. The main results found that the prisoners in the characteristic counselling showed significantly higher increasement of positive behaviors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Of more importance, the improvement were maintained two months after the ends of the counselling sessions. With its external validity, the prac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findings were discussed together.

Key words : Correction, Counselling, Prisoner, adaptation